



곤하면 으레히 간을 먼저 생각하게 될 정도로 간장질환은 우리 주위에 만연되어 있다. 간장질환에 걸리면 기운이 없고 피곤하며 온몸이 찌뿌둥하고 입맛이 없고 만사가 귀찮으면서 회를 잘 내게 된다.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은 단순히 몸이 허해져서 그러려니 생각하고 보약을 지으려고 외래로 방문하였다가 진찰과 간기능 검사를 통해 간장질환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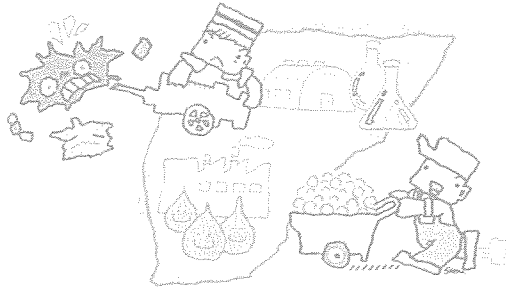
급성간염의 경우에는 증후가 뚜렷하고 안정과 영양공급 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수개월이 지나면 거의 완치되므로 그렇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으나 만성간염은 계속 진행되면 간경변이 되고 또 간암이 합병될 수 있어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

한의학에서는 2천여 년전부터 급·만성간염, 간경변, 간암 등의 간장질환을 황달(黃疸), 협통(脇痛), 창만(脹滿), 적취(積聚) 등의 범주에서 치료하여 왔으며 환자로 부터 발생하는 증상과 징후를 중심으로 간울기체(肝鬱氣滯), 간위불화(肝胃不和), 간울비허(肝鬱脾虛), 간담습열(肝膽濕熱), 어혈서락(瘀血

한방으로 보는 성인병



간장병의 한방치료



이진화
부평한방병원장

서絡), 간음부족(肝陰不足) 등 수종의 패턴[증(證)]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증에 따른 다양한 처방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바이러스성 간염을 중심으로 급·만성간염의 원인, 증상, 진단 및 치료법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급·만성간염의 정의

간세포를 표적 세포로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 간세포의 괴사와 염증을 보이는 상태를 바이러스성 간염이라 하며 이러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간염이라고 한다.

2. 급·만성 간염을 일으키는 원인

급성간염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는 A, B, C, D, E, F, G 등이 있는데 오염된 음식물이나 식수 등에 의해 감염되어 발병하는 A, E, F형 등의 급성간염은 대부분 완치되어 만성화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B형과 C형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으로 B형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5~10%에서 만성간염으로 진행하며, C형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50%에서 만



성간염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경우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급·만성간염의 증상

급성간염의 초기(전구기)에는 감기몸살처럼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며 식욕이 없어지고, 구토, 복통, 설사 등이 나타난다. 동시에 관절염처럼 사지의 관절이 아프기도 한다. 감기몸살과 다른 것은 피로의 정도가 아주 심하여 몸돌 바를 모를 정도로 몹시 심하다는 것과 콧물, 기침 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급성간염의 가장 정확한 증상은 황달로, 상술한 증상이 1-2주 지속된 후 눈의 흰자위 부분부터 노랗게 물들

다가 며칠사이 피부 전체가 황색으로 물든다. 또한 대변 색이 흰색으로 변하고 소변색이 짙게 변한다. 간장이 증대되어 우하복부에서 간장을 만져볼 수 있다.

만성간염의 경우 식욕부진, 소화불량, 상복부 불쾌감, 속이 느글거리고 구역질이 나는 등의 소화관 증상과 피곤, 무기력, 수장홍반, 거미상혈관종 등을 보일 수 있으며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4. 급·만성간염의 진단과 보약

한약 복용후 간이 나빠질 수 있는가?

모든 약물은 많건 적건 독성을 가지고 있고 한약도 예외가 아니다.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간염의 경우 피로하다. 몸이 허한 것 같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 정확한 진찰과 간기능검사를 거치지 않고 보약류를 복용했을 경우 간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

간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는 열독(熱毒)을 식히고 습열(濕熱)을 제거하는 한약으로 간염의 진행을 억제해야 하는데 이때 보약을 투여하는 것은 도리어 간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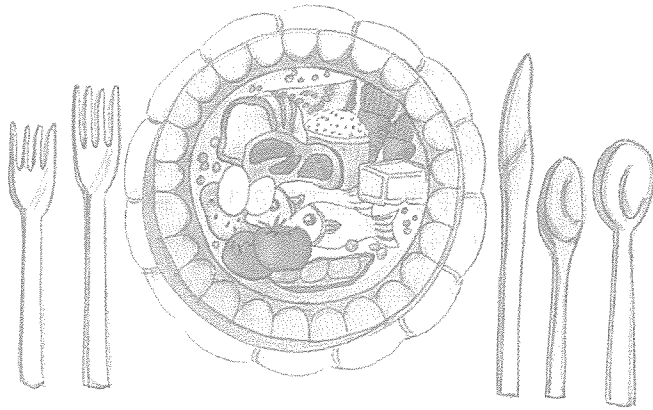
그러므로 피로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간기능검사, 간염 항원, 항체 검사 등을 시행하여 간장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고 전문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간경변, 간암의 경우 혈액검사에는 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음파검진을 같이 시행한다.

5. 급·만성간염의 한방치료

급성간염 치료의 목표는 습열(濕熱)을 제거하는데 있다. 습열이란 인체조직에서 염증이 발생하여 발열, 중창, 충혈이 된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간장습열(肝腸濕熱)이란 간장조직의 염증과 전신 피로, 황달, 소화불량, 오심, 구토 등을 포괄하는 증후군이다.

급성간염 시에는 절대적 안정과 충분한 영양공급을 유지하면서 소변을 통해 간장습열을 제거하는 인진오령산(茵陳五苓散), 대변을 통해 제거하는 인진호탕(茵陳蒿湯)을 투약한다.

입원 치료를 원칙으로 하



며 간기능이 정상으로 돌아 오더라도 충분한 기간의 입원과 퇴원 후에 도 넉넉한 휴양을 취하여 만성간염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특히 C형 급성간염은 병세는 가벼우나 만성 이행률이 높으니 더욱 유의해야 한다.

만성간염은 쉽게 치료되는 질병이 아니며 수년 또는 수십년 동안 지속되는 병이다. 일반적으로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단시일 내에 낫지도 않는다.

B형 간염의 경우 간염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감염이 되면 간세포 내에서 증식하는데 체내에서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긴다. 이 항체가 바이러스를 소멸시킬 때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산세포도 파괴되어 감염을 일으키는데 환자의 몸에서 충분한 항체를 만들어 바이러스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면 병이 완치된다.

이때 항체 생성이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면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채

간장내에서 증식이 계속되어 간세포의 파괴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B형 만성간염이다.

즉, 만성간염은 바이러스의 침입에 대한 인체 면역능력이 불완전하여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성간염의 치료 목표는 첫째, 간장조직의 염증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둘째, 인체 면역체계를 강화하여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를 형성시키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동일한 타입의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체질, 생활환경, 치료성과 등에 따라 각각 다른 패턴으로 만성간염을 분류하였는데 그중 황달, 입이 쓰거나 마름, 속이 느글거리고 구역질이 남, 식욕부진, 소화불량, 상복부 불쾌감, 피곤, 무기력 등의 증상을 위주로 하는 간담습열증 패턴의 간염이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보편적이다.

간담습열증 패턴의 만성간염에는 생간건비탕(生肝健脾

湯), 용담사간탕(龍膽瀉肝湯) 등의 처방으로 간장의 습열을 제거시킴으로써 간염의 진행을 억제시킨다. 만성간염의 진행이 억제되어 혈액검사상 이상이 없을 경우 면역기능을 강화하여 항체형성을 유도하는 한약을 투약함으로써 근본치료를 도모한다.

B형 간염의 경우 e항원의 소실을 1단계, e항체 생성을 2단계, 표면항체 형성을 3단계 목표로 한다. 현재 항체형성에 관해 많은 연구가 진행중이며 이에 관여하는 약물로는 황기, 영지, 운지, 표고버섯, 자하기(태반), 서목태, 구기자, 오미자, 단삼, 산사, 대황, 호장근 등이 있다. 각 변증유형에 따라 구성된 처방에 상술한 약제를 가미하여 투약함으로써 간염 항체의 형성을 도모한다.

만성간염의 치료는 자기자신과의 싸움이다. 건강인과 같이 정상적 생활을 유지하면서 과로를 피하고 적절한 휴식과 안정을 유지하면서 건강에 해로운 약, 술 등은 피하고 정기적으로 혈액검사와 초음파검사를 통해 간장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벌써 수개월간 치료받았는데 왜 완치가 안되냐는 성급한 마음을 버리고 인내심을 갖고 꾸준한 치료를 하는 것이 이 병을 극복하는 길이다. ㉔